

❖ 정부시적 ❖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기업의 해외자금 활용을 원활화 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도입비율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EU간 상호기술인정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장벽의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둔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경쟁력 요소 개선과제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과제 △기업 및 산업구조개선 과제 △무역제도 관련 지원과제 △재활용 및 에너지 소비절약 과제를 정하고 각 부문별로 추진해야 할 총 68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쟁력요소 개선과제로 기업이 해외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한도를 현행 20억 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고 소요금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도입비율을 폐

지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외화증권 발행전 발행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를 외화증권 발행계약 체결후의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하고 납입자본금, 당기순이익 및 신용등급 우량기업 여부를 가리는 현행 발행자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추가인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폐합 등 현행 기술개발 지원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경쟁력약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의류·신발 등 선진국보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 및 견·원피등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며 올해 산업기반기금의 대출실적을 파악해 내년 5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조성,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품에 비해 불리한 국산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점과 과세표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주요 업종별 무역수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3개 업종별 민간협의회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종합상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쟁력요소 개선대책 과제 =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확대하며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자금을 금년도 6,434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리며 해외자금 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자금 확대방안도 적극 강구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산업기술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기술개발과제 선정시 수출촉진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며 민·군겸용 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업종·시장별 대책과제 = 세계은행·ADB 등 경제개발은행과 미국·일본 등 주요 원조국이 원조자금으로 발주하는 정부조달사업정보의 입수노력을 강화하며 해외 정부조달관련 유력 에이전트 발굴 및 참가성

공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업계의 진출분위기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해외박람회·시장개척단 등 해외파견사업의 내실화 및 수출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성격별 유사 파견사업의 합동파견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의 Match-making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기업 및 산업구조개선 대책 = 비경쟁원자재와 수출용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무관세화 및 국내 생산 가능한 경쟁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상표개발 자금지원 및 제품디자인·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확대하며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보장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수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무역관련 제도의 지도강화 = 무역자동화체계의 구축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연내에 무역업무의 95%를 자동화하고 무역자동화와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제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무역생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무역자동화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 개최 알선, 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해외마케팅

기업을 육성하며 한국상품공장직매장도 현재 워싱턴 1개소에서 마이애미('98년), 뉴

욕('99년), 시카고(2천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절약기술 개발과제 확정

정부는 금년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으로 46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 3년간 2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심의회를 개최하고 '97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으로 산업분야 16건, 요업·금속 4건, 전기 15건, 건물 5건 등 46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 3년간 정부지원 152억원, 민간부담 76억원 등 총 22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를 그간 기술수요조사와 서울·대전·창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95개 과제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공개평가를 거쳐 에너지기술개발 심의회에서 결정됐다.

부문별로는 산업분야의 경우 '심랭식 공기 분리장치개발' 등 16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46억원이, 요업·금속분야에 '알미늄 다이캐스팅용 보온 급탕로개발' 등 6개 과제에 19억원, 수송분야에 '혼합 연료용 디젤기관의 고효율 분사시스템개발' 등 4개 과제에 8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건물분야에는 'Slurry Ice를 이용한 고효율 산업 및 공조용 Chiller시스템개발' 등 5개 과제에 16억원이, 전기분야에는 '고압 산업용 전동기 구동시스템개발' 등 15개 과제에 63억원이 지원된다.

주관기관별로는 기업이 25개 과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소 11개 과제, 대학 8개, 공기업 2개 순이다.

연구 형태별로는 산·학·연 공동이 39개 과제로 대부분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작년까지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총 289개 과제에 986억원을 지원, 23개 과제가 실용화 또는 상용화 추진중"이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수입대체 효과는 올해 1,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최종 에너지 예상 사용량의 10%인 2천만 TOE의 절감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2조47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과제(전기분야)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가전용 Emitter Switched Thyristor 개발	전기연구원
Soft Switching 방식을 이용한 고효율/고역률 컨버터 개발	전 성 전 기
저온살균용 고효율 고압 발생 전원장치 개발	전기연구원
SMPS용 역률 보상 모듈 개발	(주) 파 웰
고효율 Active Filter	전 기 (연)
에너지 절전형 오존발생 장치의 개발	남경어드밴스
고주파 스위칭 방식의 고효율 탑재, 장치겸용의 새로운 전동지게차용 충전기 개발	(주)창운산업
역률보상 회로와 하프브릿지를 이용한 고효율 컨버터	이 화 전 기
간이차단 성능평가기술 및 시스템 개발	전 기 (연)
고압 상업용 전동기 구동시스템 개발	한양대학교
고효율 고풍력 횡축형 영구자석 여자 전동기 개발	전 기 (연)
직류고전압 스타트방식을 이용한 펄스TIG 용접기 개발	민택리서치
비선형 되먹임방식에 의한 저항 스폿용접기의 정전력 제어기 개발	삼흥공업(주)
대용량 600V급 저임피던스 케이블시스템 개발	극 동 전 선
빙축열시스템 최적제저기 개발 및 표준화	전 력 연 구 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계획 확정

통상산업부는 내년에 추진할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태양열·태양광발전·연료전지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총 1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연구목표를 중점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 및 확대에 두고 태양열·태양광발전·연료

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폐기물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소수력·석탄이용·수소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1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기술개발 기간단축을 위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심하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국제공동

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중간진입을 적극 추진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사업을 적극 추진,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여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기술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취약성을 극복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청정에너지로서 환경개선에 부응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 기술로서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작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총 990억원을 투입,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 폐기물 소각열 회수, 메탄가스 이용기술 등은 현재 상용화 되어 보급중에 있다.

'98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추진과제

I. 일반추진과제

1. 태양열

추진과제
가. 건물 태양열 복합이용 기술 ○ 통합설계 실용화 기술개발
나.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 개발 ○ 중·고온 고효율 집열기 개발 및 실용화 ○ 중·고온 축열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태양열 발전 기반기술 개발

2. 바이오 에너지

추진과제
가. 연료용 알콜 생산 기술 ○ 고효율 균주개발
나. 메탄가스 전환기술 개발 ○ 산업용 폐수 메탄가스 전환공정 개발 ○ 1,000만m ³ /년 이상규모 LFG 실증실험
다. 미래 바이오에너지 기술기반 연구 ○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 가스화등

3. 폐기물 에너지

추진과제
가. 열분해 이용기술 실용화 ○ 폐플라스틱, 페타이어 등 고분자 폐기물 이용 열분해 이용시설 실용화 - 가스화 및 오일화
나. 재생 연료 제조기술 개발 ○ 폐윤활유 정제기술 개발

4. 석탄이용

추진과제
가. 석탄이용 가스화 기술개발 ○ 석탄가스화 반응장치 및 관련기술 개발 (선도기술개발(G-7)분야 제외)
나. 석탄액화 기술 실용화 개발 ○ 석탄 직접액화 장치 운전 - 연속식 시험설비 운전

5. 수소에너지

추진 과제
가. 연료용 수소 제조기술 개발 ○ 저가, 고효율 수소제조 공정기술 나. 수소저장·이용기술 개발 ○ 고효율 수소저장 기술 ○ 수소자동차, 냉·난방기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이용 기초 기술

6. 풍력

추진 과제
가. 풍력발전 요소기술 개발 ○ 발전기, 기어박스 등 핵심요소기술

II. 선도기술개발(G-7) 과제

1. 태양광

추진 과제
가. 고효율 태양전지 실용화 개발 ○ 저가·고효율 Si 태양전지 실용화 나.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향상 ○ 발전시스템 주변장치의 신뢰성 향상연구 ○ 응용제품 기술개발

2. 연료전지

추진 과제
가. 인산형 연료전지 실용화 ○ MW급 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 10kW급 스택, 시스템 및 요소기술 개발